

지역 소식통

고창군, 갈등해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 위촉식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25일 오후 지역사회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갈등관리심의위원은 '고창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사회단체, 언론인, 군민대표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군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공공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적극행정 성과 점검  
우수기관 장관표창 수상

부안군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하반기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과 상반기 성과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안군을 포함한 7개 우수 지자체 적극행정 책임관이 참석해 우수 지자체 사례 발표 및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군은 지난 3월 2024년(2023년 실적)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지자체 적극행정 부문에서 4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달성했다.

최영두 부군수는 "적극행정을 당연한 행정문화로 구현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유의미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으로 떠나는 구절초 가을여행

## 10월 3~13일 '제17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개최

매년 가을, 전국의 관광객들이 주목하는 특별한 명소가 있다. 15만㎡에 이르는 소나무 숲 아래서 여름의 장마, 가을, 폭염 등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구절초가 드디어 화려한 꽃을 피우는 곳, 바로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정읍 명소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이다.

구절초 지방정원은 2006년 조성된 이래 매년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대표적인 가을 여행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제17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구절초가 만개한 숲길을 배경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정취를 즐

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이다. '정원 스탬프 투어', '꽃 열차', '구절초 감작 사진사', '꽃멍 정원 명', '나무놀이 감성체험' 등 자연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구절초의 건강과 치유, 심리적 위로라는 컨셉에 맞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신청 가능한 구절초 사진공모전과 전문 DJ가 진행하

는 사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꽃밭 라디오', '구절초 기념사진 무료인화' 등 서정적인 감성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돼 있다.

축제의 개막식은 10월 6일 오후 5시, 개그맨 김재욱(봉)의 유쾌한 진행과 함께 유명 가수들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김다현, 박창근, 김용림, 박강성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10월 12일 오후 4시에는 개그맨 김영철이 함께하는 '명사 초청 강연이 꽃밭 야외무대에서 열려, 즐거움과 깊이를 더할 것이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과 자연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판매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 시민 재산권 보호 앞장

## 정읍시, 지적재조사 성과로 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

정읍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시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주관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행사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00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정형화, 경계분쟁 해소, 그리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지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화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해결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시기2지구와 시기4지구 총 1456필지에서 국비 3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조사팀(063-539-53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미래농업의 새로운 지표... 고창형 스마트팜단지 첫삽

## 총사업비 165억원 투입 지원센터 · 3종 온실 등 조성... 내년 말 준공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역 청년농업인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에서 '고창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김만기·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청년농업인과 지역 주민들 5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 스마트팜단지는 총사업비 165억원이 투입돼 4만9775㎡(약 1만 5067평)의 부지에 지원센터(340㎡)와 3종의 온실(2만1800㎡, 스마트형, 연동형, 단동형)이 지어진다.

스마트팜단지는 순차적으로 내년 2월 3개동의 온실이 완공되어, 청년농



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내년 말 전체적인 스마트팜단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은 스마트팜 청년 보육체계와 온실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년 유입·성장·정착을 윈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선도 농가들이 스마트팜 운용과 작물 재배기술을 전수, 판로 개척도 지원함으로써 기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내년 말 전체적인 스마트팜단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은 스마트팜 청년 보육체계와 온실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년 유입·성장·정착을 윈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선도 농가들이 스마트팜 운용과 작물 재배기술을 전수, 판로 개척도 지원함으로써 기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군, 상징물 '군조' 변경 주민공청회 개최

고창군이 27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상징물(군조) 변경(안)에 대한 상징물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군조 변경은 2023년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고창군 상징새(군조) 변경 제안'이 있었으며, 2024년 제3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도 군조 변경 제안이 있었다.



현재 고창군 군조는 비둘기다. 하지만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

정,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창군의 청정 이미지와 상반된다는 의견과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되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을 검토중이다.

공청회는 고창군 상징물(군조) 변경 검토배경을 설명하고, 고창군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군조변경안(뽕재비갈매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2024년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부안군은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2024년 사회복지박람회가 26일 해탈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부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안군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복지 실현을 위한 주제로 내빈 사회복지종사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유공자 14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 행 복한, 복지로 더 좋은 부안군'이라는 사회적 실천 퍼포먼스로 희망찬 부안의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었다.

또한 전체 2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체험·공연·전시·나눔이 있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부스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이춘섭 회장은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인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날이 되기를 응원한다"며 사회복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최영두 부안군 부군수는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부안군이 행복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수 있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